

“ 정의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 하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을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은혜와 용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를 찾고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 아모스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가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정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정의 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선지자 미가는 선포했다.

정의와 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동정을 말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 행동 배후에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줄 때 종족,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벌과 사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는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든지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특히 오늘날엔 탈북난민,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결혼가정의 자녀들, 장애인, 힘없는 노약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방어자)이시라(시 68:4-5) 하나님은 자신을 힘없는 자와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불명예스런 수치스러운 정의라 비웃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왕 제사장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욘 29:12-17) 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관용과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은 자비요 동정 또는 구제지 정의는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선택적 활동일 뿐이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너그럽게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다.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라는 것이다. 나만 혼자 내 떡 덩어리를 먹었고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체했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없을 때 못 본 체했던가. 옳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정적 공평 그리고 관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특히 아담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너그럽게 실천해야 한다. 자력 구원 능력 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항해야 한다. 이 정의는 의를 옷으로 입듯이 겉옷과 모자같이 항상 내 몸에 함께 있어야 한다. 정의 실현의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 도와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새로 강화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존중하여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
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
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726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주·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상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터(보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 수린존(방글라데시) / 감택: 윤영호,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 ”

■ 롬 3:9-18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 명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의인은 없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이 원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대항하며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있고 실제로 모든 허물을 행하게 된다.’(WCF 6. 4)고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량이나 역량이 전혀 없다는 칼빈주의 입장과 인간이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과 화목 및 죄 사함 문제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을 발휘할 수 있어서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알미니안 사이의 다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영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내부에는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질이나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은 반드시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건져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한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그 무거운 장벽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생을 두 손을 단단히 움켜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라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모습이 나오니다.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그는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할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칭찬받을 만한 자요 존귀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먼저 탐욕을 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불필요한 소유욕, 불필요한 권력욕, 불필요한 명예욕을 추구합니다. 평생 그 욕망의 노예로 삽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력욕의 노예가 되어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공의로운 일을 한다는 사회개혁운동가들이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한 권력욕 또는 명예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예수로 채우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길은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곧 탐욕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맺는 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의로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선한 행실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위장된 천사들, 위장된 의인들이 이 사회의 등불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배격하고 불의를 봉기시키며 욕망을 제거하고 평강을 이루어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 118:8-9).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5: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6(시 2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80(10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엡 4:11-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묘목에서 거목으로!”...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453(50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4)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45:9 인 도 자
 찬 송 94(102)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히 13:7-19 인 도 자
 설 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4)” ... 인터넷 영상
 찬 송 430(456)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 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결 혼

1. 안규현 군 (11교구 안인호 장로, 이명신 권사의 장남)과 마미선 양 (마경훈 성도, 장순려 성도의 장녀) / 7월 30일(목) 오후 6시(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376명	186명	1,562명	1,98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7/1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 19일	헌 금	26,392,300	
	선 교 비		2,400,000
	구 제 비		300,000
	출 판 비		21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인 건 비		6,072,000
	세금과공과		3,207,140
	복리후생비		54,500
	통 신 비		216,580
	수도광열비		67,940
	차량유지비		127,000
	도서인쇄비		120,000
	소모품비		55,30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342,000
	식당운영비		303,680
	합 계	26,392,300	16,647,94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